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음 2월 23일) 제176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활짝 핀 산수유 아래 따뜻한 봄기운 '반짝'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 17일 오후 전주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활짝 꽃망울을 터트린 산수유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으며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 2017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 D-100 큰잔치

## 성공기원 기합소리 광화문에 '공명'

도, 대회 홍보 위해 행사 개최... 대회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 이벤트 다채  
송 지사 "세계 태권도인에게 꿈과 희망 주는 행사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전북과 무주 태권도원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인 '2017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가 대회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전북도는 1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내·외에 대회를 홍보하고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7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D-100' 행사를 가졌다.

공동위원장이 송지진 지사와 이연택 위원장을 비롯해 태권도인 및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리우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오혜리, 이대훈 선수의 홍보대사 위촉식과 태권도 공연계의 'EXO'로 불리는 'K타이거즈'의 축하공연, 대회 성공기원 퍼포먼스 등 광화문을 찾은 2,000여명의 관람객의 눈길을 끄는 다

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송지진 지사는 "이제 100일 후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태권도 전용경기장인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 세계 태권도인의 꿈의 축제가 열린다"며 "전 세계 태권도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올 해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 대회는 단일종목으로는 역대 최대인 170여개국 1,9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태권도인의 성지 태권도원이 있는 전북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가라데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종목으로 채택되고, 중국의 우수도 올림픽 종목에 도전하고 있는 등 유사 동양 무도의 도전이 치열해지고 있어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

목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종주국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대회의 성공개최가 중요해졌다.

이에 전북도는 그 어느 때 보다 앞차고 짜임새 있게 대회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경기장 보수, 국도 정비 등 SOC와 관련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급식, 침대형 객실 등 선수단 편의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관람객 및 관광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문제 해결도 주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 협회와 태권도 학과 등으로부터 국제대회 경험 있는 300여명의 전문 인력을 분야별로 배치하고, 약500명의 자원봉사자도 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도의 뛰어난 문화예술을 선보일 개·폐막 퍼포먼스도 차질 없이 준비중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와 무주 태권도원을 전세계 8,000만명의 태권도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태권도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가 가장 중요하다"며 "1997년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전북도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매일 INDEX

4면 - 동학혁명 기념사업 탄력

5면 - 전북대, 연합대학 체제 구축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아름다운 선거

## 도, 지역건설 살리기 나섰다

현대·포스코건설 등 수도권 대형건설사 방문 간담회  
대형사업 참여시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확대에 '공감대'

전북도가 수도권에 있는 대형건설사를 대상으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세일즈를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수도권에 있는 대형건설사 본사를 방문해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사업 등 도내 대형사업 참여시 지역건설업체와 30% 이상 컨소시엄 구성을 요청했다.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은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는 입찰 및 컨소시엄 구성에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임원진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건설업계와 공감대 형성으로 이뤄졌다.

또한 그간 도내 대형사업에 주관사로 참여하거나 참여 가능성이 높은 1등급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등 도내 대형사업에 열악한 지역건설업체가 주관사로 참여가 어려움에 따라 새만금 특별법 등에 따라 지역기업 우대 기준 마련에 노력중이다.

특히 제도 개선에 앞서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으로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형건설사에서 자발적으로 지역업체와 30% 이상 컨소시엄 구성을 요청하고, 도내 건설한 건설업체 리스트를 제공해 컨소시엄 구성에 활용토록 했다.

대형건설사에서도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과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당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도내 대형사업 참여시 지역업체 컨소시엄 구성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대형건설사를 방문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등 도내 대형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대형건설사에서 지역업체와 자발적인 컨소시엄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개발청 및 기재부를 설득해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건설사, 건설현장, 발주기관 등과의 간담회를 확대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 동참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도 대형사업과 컨소시엄 확대를 위해 대형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신뢰도 제고 및 지역건설업체 규모 확대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재용 기자

### "촛불집회 시민 후원 8억8000만원"

1억원대 빛더미에 시달려 시민들 2만1000명이 후원  
퇴진행동 "3일만에 위기 면해 후원금, 25일 집회 비용으로"

연이은 집회 개최로 1억원대 빛더미에 올랐던 촛불집회 주최 측이 지난 17일 시민들의 후원 쇄도로 재정 위기를 면하게 됐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또 한번 시민의 힘을 봤다"며 시민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퇴진행동은 "빛을 앞에 두고 후원 요청을 주저했다. 예민한 돈 문제여서 걱정했다"며 "부담이 됐는데 순식간에 기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러 "사흘간 2만1000여명이 8억8000만원을 후원했다. 촛불에 참여하지 못한 미안함을 표현한 분도 있고, 광장에서 함께 맞은 따뜻한 봄을 기뻐하며 돈을 보내준 이도 있었다"면서 "후원금은 오는 25일과 다음달 15일 예정된 집회 비용으로 쓰겠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평범하고 위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미 새로운 세상은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진행동은 탄핵 선고일 전후로 집중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1억원대 빛이 발생하는 등 재정에 사달났다.

지난 14일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심심일만 퇴진행동을 지원하는 후원 운동이 일어났다.

/김민근 기자